

題研究所刊 亞細亞研究第三十八號)

⑥ 拙稿「瑞山普願寺址의 調査」(考古美術第七卷第四號)

⑦ 瑞山郡誌「古物」條 參照

⑧ 1. 杉山信三著 朝鮮의 石塔 「普願寺址五層石塔」條 參照

2. 國寶圖錄第五輯「九五 普願寺址五層石塔」條 參照

⑨ 金載元「松林寺塔」(震壇學報第二十九・三十合併號)

⑩ 國寶圖錄第五輯「一〇六 月精寺八角九層石塔」條 參照

⑪ 高裕燮「報恩法住寺木造五層塔捌相殿」(東方學志二編)

⑫ 東國輿地勝覽에 「伽耶寺」라 하였고 梅泉野錄에는 「大德寺」라 하

였으나 元來의 寺名은 「伽耶寺」다.

⑬ 拙稿「德山伽耶寺址의 石遺物」(考古美術第四卷第七號)

⑭ 梅泉野錄「甲子後, 以國力規寺於大德之陰, 名報德, 而土木金碧, 極

其壯麗, 賜與土田 貨寶甚厚」

⑮ 高裕燮「朝鮮塔婆의 研究」(朝鮮의 工藝的諸塔)條 參照

⑯ 瑞山郡誌古物條 「佛堂木像在郡廳後玉女峰上, 以瓦數十片設小屋,

屋內安置十數木像……略……年前考古學者鳥居龍藏博士, 爲備參考

品携歸一個云云」

⑰ 洪城郡誌古物條 「洪城邑東, 約八町番中有廣景寺蹟, 約五百年以水

火滅亡……略……遺址附近地主, 墾田作番之際, 金佛二體, 發掘於

瓦礎石交雜之中, 其高八寸, 移送于總督府云云」(拙稿「洪城五官

里寺址의 幢竿支柱와 石佛座像——考古美術第六卷第一號 參照)

⑱ 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」·「韓國塔婆目錄」等 參照

北漢山僧伽寺 石塔材

文 明 大

전부터 北漢山 僧伽寺 境內에는 塔材가 흩어져 있어서 이것들의 原位

置와 다른 塔材의 所在가 궁금하였는데 지난해 一九六七年 六月 僧伽寺

踏査길에 現 藥師石窟과 磨崖石窟사이에서 이들 塔材의 基壇部를 확인

할 수 있었다. 磨崖窟 못미처 岩石 아랫便의 평탄한 臺地의 土砂에 묻

혀 있었는데 五月에 우연히 發見하여 그 全部를 들어 내었다고 했다.

어떻게 이 場所에 一基의 塔만이 位置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.

새로 노출된 部分은 地臺石에서 上臺甲石까지의 基壇部 全體다. 地臺

石은 四枚의 板石으로 되었고 下臺中石은 各面に 四個씩의 眼象을 마련

하고 있다. 眼象은 一〇葉으로 幅이 三四・三cm이다. 下臺甲石위의 中

石받침은 三段으로 中段은 물렁이다. 그런데 上臺中石은 全高가 三一cm

로 一般形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다. 그것도 撐石과 隅石이 있는 中石과

이것들이 없이 一段높게 刻出한 받침形의 二段으로 되어 特異한 手法을

보여준다. 上臺甲石은 一枚의 板石으로 되었고 屋身피임은 中石받침과

마찬가지의 三段이다.

이 외에 이 塔의 塔身과 屋蓋들이 境內에 흩어져 있다. 第一塔身으로

推定되는 것이 石窟과 法堂 사이의 길가에 놓여있다. 高五六cm 幅九三

cm인데 隅柱까지 마련하고 있다. 이와 함께 三層屋蓋石이라 생각되는 것

(高三二cm, 幅一〇八cm)이 있는데 屋石받침은 三段이다. 또 하나의 塔身

이 현재 水道옆에 놓여 있는데 흙을 파서 철구로 사용하고 있다. (高가

五一・五cm 幅이 六四cm 暈徑이 四六cm 深三五cm) 法供養의 塔이 僧供

養으로 變해진 심히 逆說的인 現象이다.

基壇部의 特異性 특히 上, 下 中石에 나타난 眼象과 현저한 底高等은

麗初의 塔에 나타나는 樣式인데 三段의 屋石받침 手法에서도 보이고 있

는 것으로 注目되는 점이다.

報 告

◎ 新羅五岳智異山(南岳)地區 第四次調査

智異山地區 第四次調査가 年初인 지난 一月三日부터 十二일까지十日